■ 표준·백분위 점수대별 지원 전략

상위권 백분위 점수 잘 따져라

〈표준점수 500~529점〉

최상위권 〈530점 이상〉 탐구영역 성적 꼭 점검을

중상위권 〈450~499점〉 소신·안전 병행지원토록

중하위권 〈449점 이하〉 수능점수 위주 대학 선택

수능성적이 13일 발표됐다. 수험생은 이제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시모집 기간이 12월21일부터 27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입시전문가들은 수험생 자신의 점수와 전체 계열 내에서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치밀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시전문기관인 중앙학원이 내놓은 점수대별 지원전략을 살펴본다. 표준점수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4개 영역 각 200점씩 800점 만점 기준이며, 백분위 점수는 4개 영역 각 100점씩 400점 만점이다.

◇최상위권(표준점수 530점, 백분위 380점 이상)=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상위권 학과, 의학 계열 학과에 지원 가능한 점수대다.

이들 대학의 경우 대부분 수능 4개 영역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만큼 탐구 영역의 성적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구술고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상향 지원하는 것은 금물이다.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는 평가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논술 성적 변수는 5점 내외, 면접·구술고사의 성적 변수는 3점 내외로 가정하고 합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인문계 최상위권 학생들은 계열 교차 지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위권(표준점수 500~529점, 백분위 350~379점)=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3번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1~2회는 소신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소 상향 또는 하향 지원하면 된다.

특히 이 점수대의 수험생들도 군별 대학 선택에 따라 논술이나 면접·구술 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동일한 표준점수대에서도 수험생 개인별로 백분위 점수는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중상위권(표준점수 450~499점, 백분위 280~349점)=일반 4년제 대학은 물론 유명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인기 학과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와 수능으로 뽑는 만큼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오히려 쉬운 편이다.

복수 지원 횟수에 따라 적절히 상향, 적정, 하향 안전 지원을 병행하되 반드시 합격하고 싶은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라면 전형 자료 외에 모집 인원, 경쟁률 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하위권(449점 이하, 백분위 279점 이하)=일부 수도권 소재 대학을 포함, 전국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대학과 전문 대학도 함께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다.

자신의 진로 방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뒤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4년제 대학은 수능 성적 위주로, 전문 대학은 학생부 성적까지 고려해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용 어 풀 이

◇표준점수=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영역의 시험을 치른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평균점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크게 낮아진다.

산출 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에 20(탐구영역은 10)을 곱한 결과에 100(탐구영역은 50)을 더해 구한다. A과목에서 원점수 60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50점, 표준편차가 20이면 표준점수는 110점이 된다.

표준점수의 범위는 이론상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0~200점이고,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0~100점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성적이 정규분포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40~160점, 탐구영역은 20~80점 범위에서 성적이 나온다.

표준점수-평균 낮은 영역 고득점땐 높아져

백 분 위-수험생간 상대적 서열 알 수있어

◇백분위=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이다. 범위는 0~100으로 수험생의 상대적 서열 정보를 알 수 있어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조정할 수 없는 표준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수험생이 수리영역에서 표준점수를 70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보다 낮은 응시자가 전체의 75%라면 이 수험생의 백분위는 75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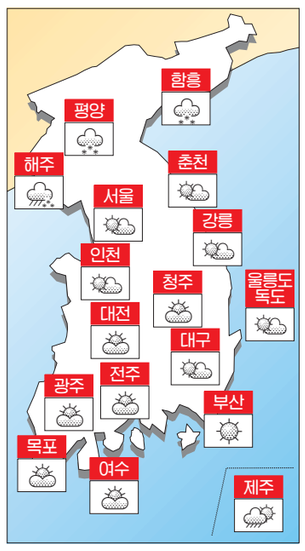
◇등급=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등급이 1~9등급으로 표시된다. 2007 수능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지만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등급만 표기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상위 23%까지 순이며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구름 낀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12월 14일 (음 10월 2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3~10℃
목 포	구름 많음	4~10℃
여 수	구름 많음	5~11℃
완 도	구름 많음	3~11℃
구 례	구름 많음	2~10℃
해 남	구름 많음	1~11℃
장 흥	구름 많음	1~11℃
고 흥	구름 많음	2~11℃
순 천	구름 많음	1~10℃
영 광	구름 많음	2~10℃
진 도	구름 많음	2~11℃
전 주	구름 많음	2~10℃
남 원	구름 많음	-2~10℃
정 읍	구름 많음	2~1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8:59 21:10 썰물 〈 02:14 14:36
여 수 밀물 〈 04:30 16:21 썰물 〈 10:19 22:51

▲해뜸 07:32 ▲해짐 17:21 ▲달뜸 01:20 ▲달짐 13: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 씨						
최저/최고	1/9	-2/2	-5/3	-4/6	-3/7	-1/8

AI 급성염증 치료제 개발 박차

전남대 벤처기업 '프로셀' 내년 동물실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급성염증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이다.

13일 전남대 의대 조대웅 교수(38)에 따르면 조 교수가 이끌고 있는 교내 벤처기업 '프로셀'은 지난 4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감염으로 인한 급성염증 치료물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획기적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단백질 신약을 개발, 생화학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성 박테리아와 급성 간염에 대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이 약의 특허권은 밴더빌트대에 있어 조 교수는 이번에 다른 성분의 단백질을 이용한 독자적인 신약 개발을 연구하면서 실험모델을 조류인플루엔자로 삼았다.

조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치료물질을 개발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1을 주입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급성염증 치료제가 개발되면 강력한 병원성 박테리아균들의 감염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 등을 막을 수 있어 동남아 처럼 AI 감염으로 인한 급성염증으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초·중 '5·18 인정도서' 첫 편찬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개하는 초·중학생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편찬된다. 인정도서는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재량활동 및 클럽활동 시간에 이용되는 교재다.

'(사)5·18기념재단'(이사장 이홍길·이하 기념재단)은 13일 5·18 공교육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 '5·18 인정도서'를 만들기로 하고 집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필에는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추천한 교사 등 12명이 참여해 현재 초등 3개 대단원, 중등 5개 대단원 등의 목차를 만들었다. 분량은 각각 150여 페이지로, 34시간 동안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기념재단은 15일 공청회를 통해 목차를 확정지은 뒤 내년 3월까지 1차 집필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까지 감수를 마쳐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광주·전남의 일선학교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교재로 이용할 수 있다.

/임주형기자 jhlim@

수능 광주·전남 수석

■ 광주 인문계 서석고 신정훈

학교 수업에 충실

685점을 얻어 광주지역 인문계열 수석을 차지한 신정훈(18·서석고 3년)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얼떨떨하긴 해도 기분이 좋다"며 "수능 후 언어 영역을 평소보다 못 봤다고 생각해 조금 불안했는데 성적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신군은 1학년때 국어 학원을 다녔던 것이 유일한 과외였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에 지원할 예정인 신군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고 선생님이 요구한 숙제와 가르쳐준 노하우 등을 숙지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

■ 광주 자연계 인성고 정지혁

문제푸는 과정 즐겨

정지혁(18·인성고 3년)군은 이번 수능에서 691점을 얻어 광주지역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인 정군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논술 고사를 봐야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뒤로 시내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군은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며 "이번 수능에서는 물리 표준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전남 인문계 목포고 장민주

학원 다닌 적 없다

"고생한 보람을 찾게 돼 기쁘고, 부모님과 학교선생님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전남 인문계 수석을 차지한 목포고등학교 장민주(18)군은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 표준점수로 688점을 획득한 장 군은 고교 3년 동안 학교수업 외 학원이나 과외를 받은 적이 없이 학교공부만으로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수시로 서울대 특기자 전형 법대를 지원했고, 정시에도 서울대 법대에 지원해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다.

■ 전남 자연계 목포고 송광모

컴퓨터 공학도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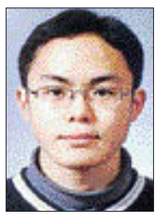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목포고등학교 3학년 송광모(18)군이 광주·전남 지역 자연계 공동수석을 차지했다.

이번 수능에서 송 군(자연계)은 표준점수로 692점을 획득해 광주·전남 자연계 공동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가채점 결과 고득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송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0등 권, 2학년 때는 2~3등을 하다 3학년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학원은 거의 다니지 않았으며 물리과목은 공부가 조금 부족해 개인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기 컴퓨터 공학부에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자연계 전남과학고 김도영

기초과학 연구 포부



"1년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좋은 결실을 낳아 기쁩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692점으로 광주·전남지역 자연계 공동수석을 차지한 전남과학고 출신 김도영(19)군은 지난해 아픔을 떠올리며 활짝 웃었다.

지난해 울산대 의대를 지원해 실패했던 김 군은 지난 2월부터 서울의 학원에서 종합반 수업을 받으며 절치부심,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게 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